

Istio를 이용한 트래픽 관리

박진수

2022.11.14 AUSG 정기모임



제 소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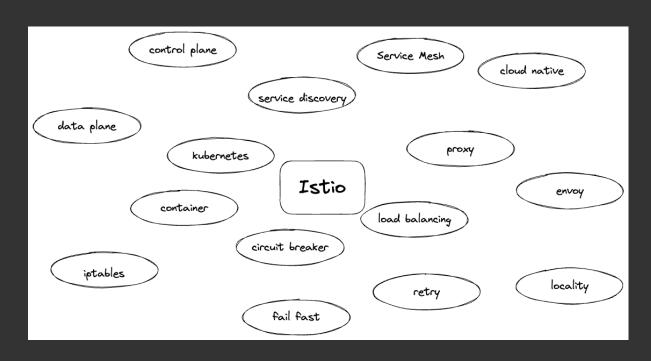
-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-> 컴퓨터공학과
- 메가존 클라우드, 당근마켓 인턴을 거쳐 데브시스터즈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근무 중 🔤
- 트러블슈팅을 좋아합니다
- 깊게 파고들고 싶습니다...

- dev.umijs@gmail.com
- facility https://umi0410.github.io
- Github: @umi0410

오늘 다뤄볼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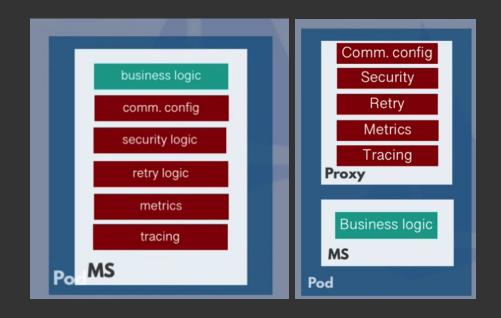
- Service Mesh란?
- Istio란?
- Istio의 주요 개념 설명, 트래픽 관리 예시 살펴보기
- 라이브 데모
 - Locality load balancing
 - Canary deployment

평범한 대학생이 익히기는 쉽지 않은 Istio..



- 많은 기능이 있다해도 보통은 애초에 그런 기능을 왜 쓰는지부터가 공감이 안된다.
 - MSA나 실제 프로덕션을 경험해보기 힘듦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설치나해볼까.. 마음 먹으면
 - <u>○ Istio: "❤ 어이, 쿠버네티스부터 친해지고 돌아와라. ㅋㅋ"</u>
- -> "오늘 그냥 구경이나 해보고 관심있으면 나중에 찍먹이라도 해보자"
 Istio나 서비스메쉬, 쿠버네티스가 꼭 익혀야하는 기술은 아님. 삘이 오면 공부해볼만 할 뿐.

Service mesh가 등장하게 된 배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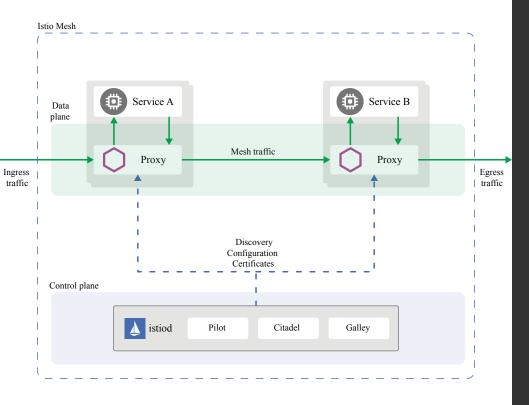
- 1. 컨테이너 기술의 보급
- 2. Monolith -> MSA로의 전환
- 3. 마이크로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은데 공통 로직을 매번 개발하고 관리하기 너무 번거로워!
- 4. 공통 로직은 프록시가 공통으로 수행해주고, 애플리케이션은 비즈니스 로직만 담당할래!
 - 애플리케이션 코드에는 변경 하나 없이 서비스 메쉬 레벨에서 공통 로직 지원 가능
- 5. 더 나아가서는 트래픽을 제어하는 다양한 기능들도 지원 가능 e.g.) canary를 위한 load balancing, locality load balancing, traffic mirroring, fault injection, ...

왜 이름이 Service Mesh인가?

서비스 간 통신에서의 다양한 기능을 위해 단일 Gateway를 갖는 게 아니라 각 서비스에 **Proxy**가 붙어서 자기들끼리 통신하는 **그물망** 형태이기 때문.

Service Mesh의 아키텍쳐

- Data plane
 - 서비스 서비스 간의 요청을 intercept해서 메쉬를 통해 이용하고 싶었던 기능들을 수행해 줌.
- Control plane
 - 주로 data plane에게 설정을 전달해주는 역할
 - 필요한 데이터(e.g. 인증서)를 생성하거나 조회해옴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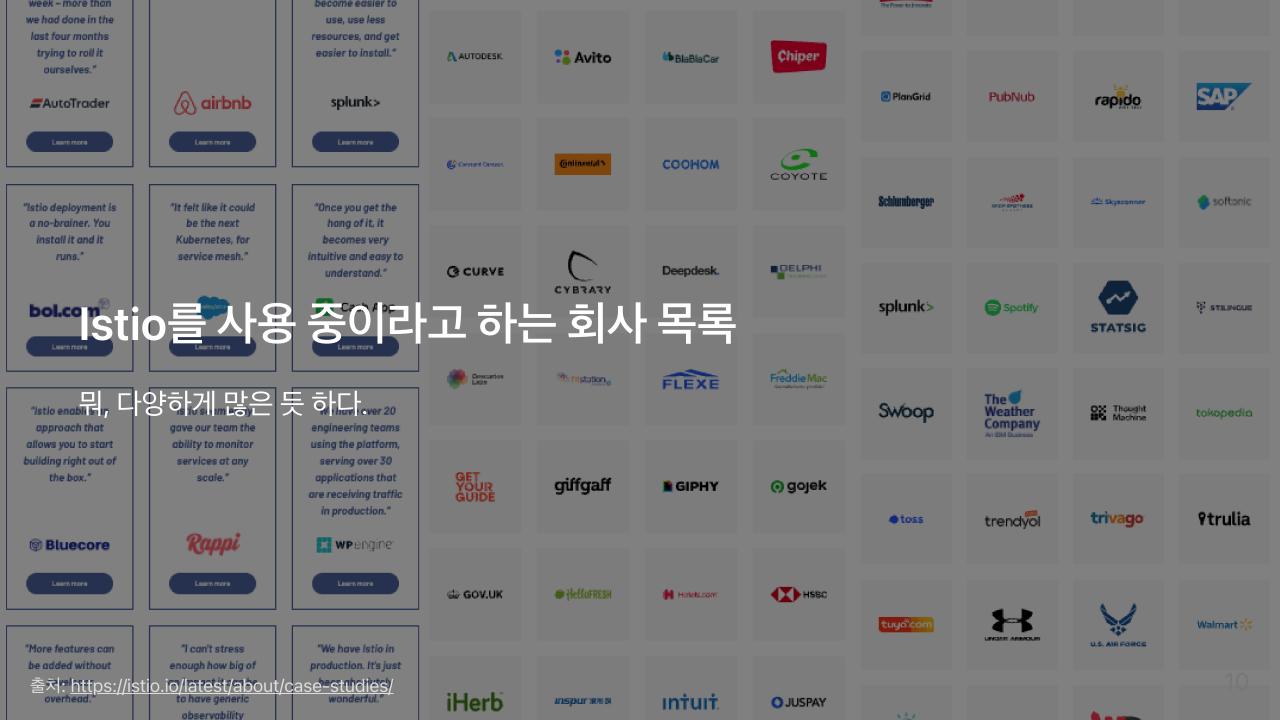


Istio란?

- 서비스 메쉬를 구현한 제품 중 하나
 - 다른 제품들은 Linkerd, Cilium Service
 Mesh, Consul Connect, ... 등이 있음.
- Istio에서 Data plane 역할을 하는 것은 Envoy이고, Istio는 Envoy를 어떻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게끔 해주는 도구 같은 느낌.

Istio란?

- Istio는 VirtualService, DestinationRule, Sidecar, AuthorizationPolicy, ServiceRegistry,
 ... 등등의 Custom Resource로 Envoy의 설정을 추상화시켰음. -> 이용하기 좀 더 편하고
 validation이 된다. ^_^
 - 처음엔 일단 VirtualService, DestinationRule에 집중해보는 게 좋고, 세부 기능도 궁금하 <u>다면 나머지 개념들을 익혀나가는 게 좋을 듯</u>함.
 - Envoy에 존재하는 Listener, Router, Cluster, Endpoint 등의 개념등을 추상화 한 것



시간 관계 상 초간단하게

VirtualService와 DestinationRule을

살펴만 보겠습니다.

Custom Resource: VirtualServic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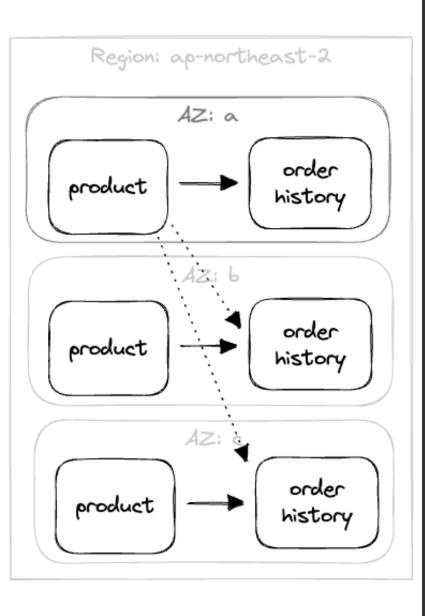
```
# https://istio.io/latest/docs/concepts/traffic-management/#virtual-services
apiVersion: networking.istio.io/v1alpha3
kind: VirtualService
metadata:
  name: reviews
spec:
  hosts:
  reviews
  http:
    route:
    - destination:
        host: reviews
        subset: v2
      weight: 10%
  - route:
    - destination:
        host: reviews
        subset: v1
```

- "특정 L7 조건을 만족하면 신 버전인 review:v2로, 그게 아니라면 구 버전인 review:v1로 라우팅하라"
- "10%는 신 버전인 review:v2로, 나머지는 review:v1으로 라우팅하라"

Custom Resource: DestinationRule

```
apiVersion: networking.istio.io/v1alpha3
kind: DestinationRule
metadata:
  name: reviews
spec:
  host: reviews
  subsets:
  - name: v1
    labels:
     version: v1
  - name: v2
    labels:
      version: v2
```

• Service Subset이나 로드밸런싱 알고리즘을 정의하는 등 목적지에 대한 세부 설정 가능.



Demo #1: Locality load balancing

- 같은 Availabilty zone에 있는 서버들은 같은 zone에 있는 서버 위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intra zonal locality load balanacing
- DestinationRule을 이용
- product 서버는 "해당 상품을 주문한 적이 있는가?"를 조회하기 위해 order-history 서버에게 요청을 보냄.
 - 이때 AZ a에 있는 product 서버는 AZ a에 있는 order-history 서버로 요청을 보냄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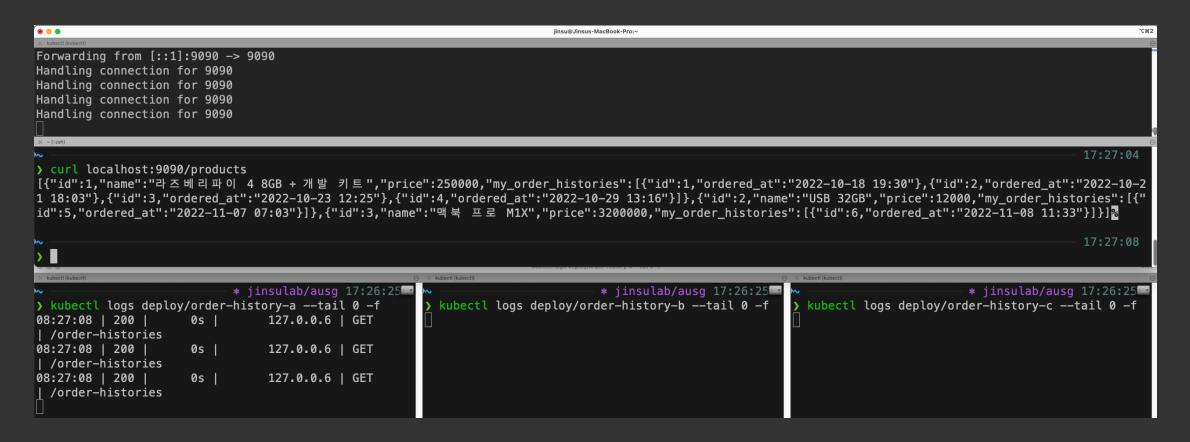
Demo #1: Locality load balancing

- 서버(Pod)가 스케쥴된 노드(VM) 간의 locality를 살려 load balance
- 대부분의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은 Node(VM)가 뜨는 지역에 대해 topology. 어쩌구 라는 라벨을 붙여줌.
-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 비용 이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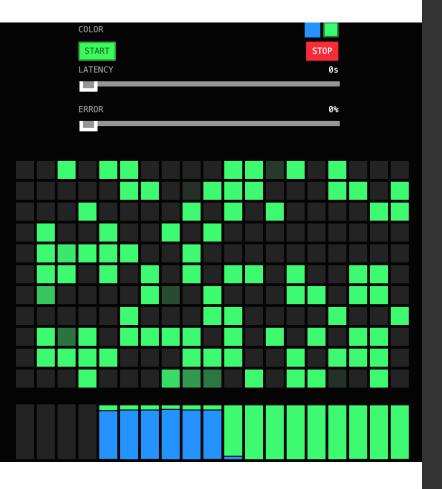
Workload components in same AWS Region

Data transfer within the same Availability Zone is free. One way to

Demo #1: Locality load balancing



- 1. zone a의 product Pod로 요청을 보낸다.
- 2. zone a의 product Pod는 zone a의 order-history Pod에게만 요청을 보낸다.



Demo #2: Canary deployment

- container image tag를 : blue -> : green 으로 변경 하는 배포를 Canary 방식으로 안전하게 수행해볼 것임.
- DestinationRule을 통해 stable, canary 의 2개의 subset을 정의.
 - stable은 blue, canary는 green으로 응답.
 - 결과적으로는 green stable이 된다.
- VirtualService를 통해 subset별 weight를 조절할 수 있다.
- 초기 트래픽 비율 stable: 100%, canary: 0%
- Cananry 중 stable: 90%, canary: 10%
- Canary 완료 stable이 blue -> green이 되며 stable: 100%, canary: 0%

Demo #2: Canary deployment

- 1. https://canary.jinsu.me 에 접속해 모든 요청이 stable로 전달됨을 확인.
- 2. VirtualService에서 subset별 weight stable: 90% 로 낮추고 canary: 10% 로 늘림.
- 3. https://canary.jinsu.me 에서 10%의 요청만 canary임을 확인.
- 4. kubectl edit 을 통해 stable의 image tag도 green으로 변경. 이때 stable과 canary 모두 green
- 5. blue -> green으로의 canary deployment가 완료되었으니 weight를 다시 stable: 100%, canary: 0% 로 변경

제가 느낀 Istio의 장단점 - 장점 🛑

- 새로운 서비스를 노출시킬 때 Istio가 제공하는 API를 바탕으로 간편하게 노출시킬 수 있다.
-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 다양한 기법을 간편히 적용할 수 있다.
- 다른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도구들과 연동이 잘 된다.
 - o e.g.) External DNS, Cert Manager, Argo Rollout, Prometheus ...

제가 느낀 Istio의 장단점 - 단점 🤒



(단점은 대체로 Istio만의 단점이라기보단 서비스 메쉬의 공통적인 단점 같음.)

- 알면 편하게 쓸 수 있는데,,, 모르면 너무 어렵고 진입하기 쉽지 않다.
- 관리 난이도가 낮지 않다. 모든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스럽다. 릴리즈 주기 가 짧다.
- 개발자의 로컬 환경과 실제 클러스터 환경에서의 동작이 상이할 수 있어 때론 경우에 따라 디버깅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다.

피드백 및 Q&A



감사합니다.

참고한 것

- 각종 Istio의 공식 문서들
- Istio in Action (2022.03) https://www.manning.com/books/istio-in-action
- Circuit breaker in microservice https://blog.devgenius.io/circuit-breakers-in-microservices-625654df0830
- ArgoRollout 공식 문서 https://argoproj.github.io/argo-rollouts/
- Service Mesh 구현체들 비교 https://devopscube.com/service-mesh-tools/
- Service Mesh Manifesto https://buoyant.io/service-mesh-manifesto
- Linkerd가 Envoy를 proxy로서 사용하지 않은 이유 https://linkerd.io/2020/12/03/why-linkerd-doesnt-use-envoy